

주간건설 *Review*

721호 2022.5.20.(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락처 : 02-771-7936

주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 **업계 동향**

- ▶ 한신공영, 환기재단·환기미술관과 문화예술 협력 협약
- ▶ 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 ▶ 계룡장학재단, 장학금 누적액 64억원 육박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방안' 추진
- ▶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등 법안' 입법예고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5.14(토)~2022.5.20(금)>

제721호 2022.5.20(금)

<업계 동향>

◆ 한신공영, 환기재단·환기미술관과 문화예술 협력 협약

○ 5월19일 한신공영은 환기재단·환기미술관과 문화·예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국내 우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온 환기미술관이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은 협약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상호 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음

○ 공동 추진 사업은 각종 전시회 및 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작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회 공동 개최, 견본주택 내 전시공간 컨설팅 지원 등이며, 한신공영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한국 추상미술의 위대한 선구자인 김환기 화백의 예술세계가 그대로 녹아있는 환기미술관은 지난 1992년 개관한 이래 30년간 200여차례의 전시회를 해왔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최문규 사장(오른쪽)과 박미정 환기미술관장

◆ 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 5월16일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한 한화건설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시행하는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하였음

○ 특히 한화건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 유지로 나타나 동반성장 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이와 함께 협력사에 실질적 혜택을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 자금 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책 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임
- 한화건설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온라인으로 체결된 공정거래 협약을 살펴보고 있는 한화건설 외주상생혁신팀 직원들

◆ 계룡장학재단, 장학금 누적액 64억원 육박

- 계룡건설산업이 설립, 운영하는 계룡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고교생·대학생 장학금 7850만원을 78명에게 지급했다고 5월17일 밝혔음
- 이번에 지급한 장학금은 올해 예정된 일반장학금 전체 1억5700만원 중 1회분이며, 계룡장학재단은 1992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1만5434명에게 모두 63억7836만원을 지급하였음
-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 뜻깊은 장학금 전달식을 오랜만에 갖게 됐다”며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계룡장학재단은 장학사업과 유림경로효친대상, 광개토대왕비 복제비 건립, 일본 백제문화유적 탐사,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 독도 우리땅 밝기 사업 등 공익사업과 문화사업을 다수 펼치고 있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이승찬 이사장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5.14(토)~2022.5.20(금)>

제721호 2022.5.20(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월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물가 상승률도 대폭 상향조정
- 건설투자 전망치 또한 지난해 11월 전망치였던 2.4%에서 -1.3%로 대폭 하향조정해 향후 건설시장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 전망의 개요 및 위험요인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지난해 11월 전망치였던 3%에서 하향조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2.3%로 추가 하락할 전망
-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종전 전망치인 1.7%보다 대폭 높은 4.2%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2.2%로 상승률 하락 전망
- 특히,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제약 받을 가능성(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 지역 봉쇄 정책 지속)
- 아울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 파급 가능성

□ 건설비용의 높은 상승세 지속으로 건설투자 회복 지연

- 자재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건설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자재난이 내년이나 풀릴 것으로 전망
- 실제 올해 1/4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1.7%)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5.3%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인허가가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택착공이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주택준공도 감소로 전환
- 이에 따라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였던 2.4%에서 대폭 하향조정된 -1.3%로 제시
- 올해 1분기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올 상반기 중 건설투자는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0.3%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지 못할 것이란 것

- 올해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은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이며, 이는 2023년 들어 점진적 개선세를 보일 전망
- 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선제적인 SOC 투자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 증가
-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노후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2022~23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20 ^p	2021 ^p	2022			2023
	연간 ^p	연간 ^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0.9	4.0	2.9	2.7	2.8	2.3
총소비	-2.4	4.2	4.1	4.5	4.3	3.6
총고정투자	2.6	2.6	-2.2	0.5	-0.8	2.5
건설투자	-0.4	-1.5	-3.0	0.3	-1.3	2.3
총수출(물량)	-1.8	9.9	7.5	2.9	5.1	2.8
총수입(물량)	-3.3	8.5	5.7	4.1	4.9	4.8
경상수지	759	883	258	258	516	602
소비자물가	0.5	2.5	4.3	4.2	4.2	2.2
실업률	4.0	3.7	3.4	2.9	3.1	3.3

자료 : 한국은행, p는 잠정치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2.5.14(토)~2022.5.20(금)>

제721호 2022.5.20(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방안' 추진

-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단순 시공 탈피와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 주요내용>

□ 기술형 입찰 확대

-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 발주공사의 11% 수준이었던 기술형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
- 이는 당초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었던 기술형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앞당긴 것으로, 국토부는 기술형입찰 비중 확대를 위해 공공발주처가 심의를 신청할 때 기술형입찰을 선택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
- 한편, 국토부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300억 미만 공사라도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기술형입찰을 적용키로 함

□ 운찰제 요소 개선

- 국토부는 낙찰자가 '운'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격평가 중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획개정부와 낙찰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주력분야' 고도화

- 국토부는 발주처가 실력 있는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고도화 작업을 연내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현재 전문건설업체에 한해 28개 분야로 도입되어 있는 '주력분야' 제도를 종합건설업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 종합건설업에 적용할 세부적인 주력분야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를 고려해 종합건설업 주력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

□ 건설사업관리(PM) 활성화

-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PM)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키로 함

□ **공정 건설 환경 조성**

-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체불임금 발생 차단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등도 추진키로 함

◆ **‘중양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등 법안’ 입법예고**

- 5월16일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양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중양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 (중양심의위원회 구성) 500명 이내 위원 → 600명 이내 위원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300명 이내의 위원 → 400명 이내의 위원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 50명 이상 70명 이내 → 50명 이상 150명 이내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하되, (1)발주하려는 공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발주청 소속 직원 과반수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2)발주청 소속직원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발주청이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소속 직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 확대**

-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분과위원회 위원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 현행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정수의 5분의 1범위

□ **중양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완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